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8월 19일
(월요일)

북부신문 5면

무소속 구본승 의원

통진당 탈당, 당리당락 떠난 주민 위한 책임정치 강조

“강북구청 커다란 산 알아가며 주민에 보탬 되는 구의원 되고파”

“구의원들의 책임정치가 가능한 쪽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강북구의회 구본승 의원(미아동, 송중동, 번3동)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책임정치’라는 단어를 꺼내 들었다.

정당공천제 폐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구의원의 생각이 궁금했다.

구 의원은 정당이 구의원의 책임정치를 도와주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만 있다면 정당공천제도가 나쁘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책임정치’가 구의원인 그에게는 신념이고 철학이란 의미다.

“구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표해 소신 있게 정책을 펼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구의회 역할에서 정치색은 중요하지 않는데 정당의 영향으로 구의회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구의회는 잘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책임정치를 논하기에 앞서 그가 생각하는 구의회의 현재 모습이 주민을 위한 구의원의 책임보다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리는 모습이 더 많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로 이어졌다.

강북구의회 의원으로 입성했다. 민주노동당은 이후 2011년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통합해 통합진보당을 탄생시켰다. 2001년도 민주노동당의 사무차장으로 정치일선에 뛰어든 그에게 10여년 만에 찾아온 큰 변화였다. 하지만 통합진보당은 지난해 총선 비례후보 부정선거 문제를 겪으며 큰 충격을 치렀다. 이후 구 의원은 통합진보당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큰 실망을 하게 됐다고, 결국 진보정당에 걸맞는 민주적 당 운영과 문제해결의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생각에 오랜 세월 몸담은 정당을 떠나 구의원으로서 주민을 위한 책임을 택하게 됐다.

민주노동당에서 그는 참 많은 것을 도맡아했다. 법대 출신인 그는 민주노동당에서 강북주민 법률상담센터 사무국장도 맡았고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신용회복 상담도 진행했다. 그렇게 주민들과 관계를 쌓아갈 무렵 2004년 처음으로 시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했다.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후보에 이어 3위를 차지, 고배를 마시긴 했지만 이는 민주당 후보를 앞서는 성과로 주목을 받았다. 구 의원이 책임정치를 다짐하며 구의원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도 이 도전 실패 후부터. 한 번의 고배가 그에게 큰 성장을 안겨줬다.

“강북구 무소속 구의원”



다. 그러나 진보 정당의 젊은 후보가 받은 득표로는 꽤 높은 편이었다고. 그리고 마침내 2010년 지방선거에서 12.4%의 득표율로 강북구의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그의 책임정치가 비로소 빛을 볼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그렇게 정치 인생을 민주노동당과 함께 해 왔던 그에게 탈당이 결코 쉬운 선택일 수 없었다.

“강북구의원에게 바라는 강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당적여부 또는 어느 당에 속하느냐보다는 구의원으로서의 직분에 충실한 의정활동, 지역 민생활동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이 가능했습니다”

어려운 선택을 내렸지만 구 의원은 진보정치 혁신과 노동자, 서민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진보정치 세력의 새로운 통합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것은 아니라고 못 박았다. 작지만 진보의 통합을 위한 단체에서도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아직은 미약하지만 그가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처럼 차근차근 밟아나간다면 새로운 진보 세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품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책임정치를 강조하는 구 의원은 어떤 구의원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을까. ‘마당쇠’처럼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그였지만 2년

심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 특히 소외받는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팔을 걷어 부치고 있다고. 이는 탈당하긴 했지만 민주노동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그가 자신의 정치 신념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구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화장실 안전순환이 설치와 장애인전용콜택시 차고지 이전, 임대아파트 발코니 교체 등을 성사시키는 등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려고 노력했다.

이런 구 의원의 요즘 관심사는 강북구만의 일자리 창출, 구 차원에서 충분히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의 구 의원의 생각. 구청장은 아니지만 구청장만큼 강북구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알아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강북구청이라는 커다란 산을 바라보는 눈을 키워 강북구를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기 때문이란다.

“산 전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있는 나무들을 아름답게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산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본다는 비탄의 말도 새롭게 해석해 가치를 부여하는 구본승 구의원.

“요즘 화두인 주민참여예산제나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이 10여년 전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북부신문 5면

그에게 책임이란 주민을 대표해 짊어진 빛나는 훈장이나 다름없다. 그렇기에 13년을 몸담았던 정당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선택도 가능했다. 탈당을 결심할 때 2001년 민주노동당 입당 이후 강북구에서 13년째 진보정치활동을 함께 해온 지역당원들과 같은 정당 소속이라는 정치관계를 끊는 것이 가슴 아팠고 망설임 수밖에 없었다고 회고했다.

구 의원은 지난 지방의원 선거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 제6대

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정치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을 이해했고 이후 노동과 법률상담 등 꾸준히 지역 주민들의 편에서 활동을 이어 나갔다. 지역 청년으로 어르신들을 정기적으로 찾아뵙며 지역민들을 향한 귀도 열려나갔다.

이후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구 의원에 도전하면서 자신이 그러던 책임정치가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다. 그러나 11%를 득표하며 낙마했



▲ 최근 13년간 몸담았던 통진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을 택한 구본승 의원. 인터뷰 내내 그의 관심사는 ‘주민’, ‘책임정치’였다.

주민은 구의원으로서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이는 만큼 보인다고 많이 알면 알수록 주민을 위한 일도 더욱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2년이 흐른 후 구 의원은 “부족하지만 나를 ‘마당쇠’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열심히 지켜나가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씨익 웃어 보였다.

책임정치를 스스로에게 약속했던 그는 주민들의 민원 하나하나에 열

거졌지만 결국 실현방안을 두고 논의하고 있는 것처럼 강북구청이란 산을 바라보며 의정 활동을 고민해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구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지난 89년 강북구에 이사 오면서 지역과 연을 맺기 시작한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구본승 의원의 강북 사랑은 오늘도 그렇게 실현 방안을 찾아가고 있었다.